# Unit 1 by Sang Hoon Youm VOIDSCAPE 도시 빈공간 디자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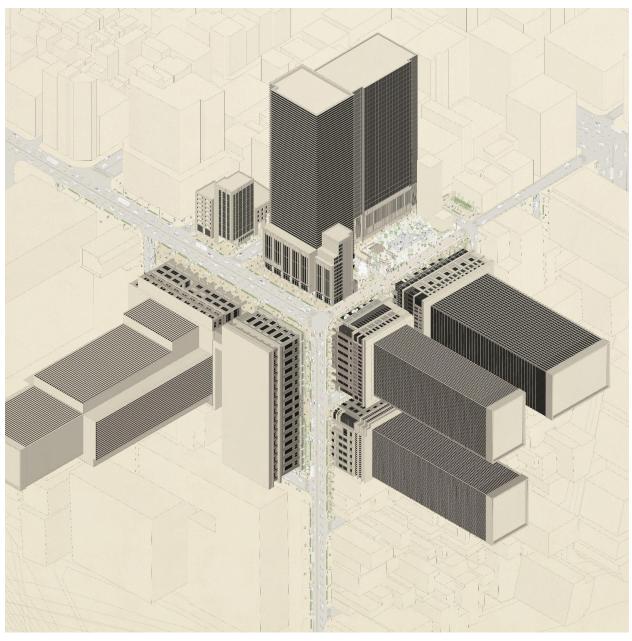


image @ CAT도시건축디자인연구실, 연세대학교

# **Unit M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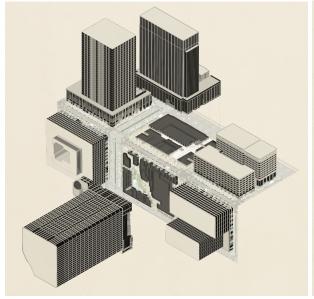
염상훈 Sang Hoon Youm, AIA // 염상훈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뉴욕 컬럼비아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CAT건축도시디자인연구실을 운영하며 도시적 관점을 반영한 건축디자인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 사이의 경계 공간에 대한 그의 연구는 미래의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서 건축 및 건축가의 역할을 탐구하고 새롭게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SOM 뉴욕과 GDS NY 근무하면서 다수의 마스터플랜 및 고층 빌딩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윤동주기념관 설계로 44회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제 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건축 디자인과 연구는 MMCA 서울, MoMA 뉴욕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의뢰 및 전시된 바 있다.

# **Unit Agenda:**

#### VOIDSCAPE 도시의 빈공간 디자인하기

도시의 빈공간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남은 단순 여백의 공간이 아닐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교류, 이벤트, 상업 등 여러 활동이 시작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도시가 고밀화, 다층화되면서 도시의 여백은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며, 지상층의 분리와 단절은 도시의 공적 활동을 한정하게 된다. 도시의 여러 제도와 법은 이러한 건축의 공공성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와 개인의 가치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도시는 밀도와 공공성의 균형을 고민하게 된다.

고밀도 도시에서의 빈공간은 그것을 둘러싼 건축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도시에 좋은 빈공간을 만들기위해서는 건축을 도시 혹은 마을 단위의 관점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하여햐하며, 개별 건축물만을 바라보는 관점이아니라 건물의 군집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적 스케일의 덩어리로 건축물 바라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건축적 스케일, 인간적 스케일로 건물의 재료와 입면 등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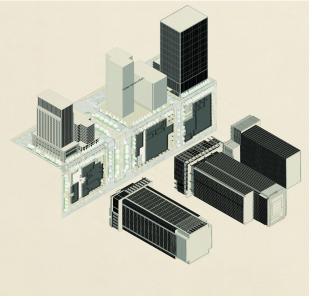


image @ CAT도시건축디자인연구실, 연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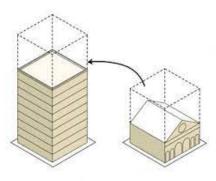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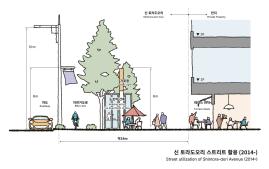


image 도쿄와 뉴욕의 TDR, POPS





우다고다마/[작숙의 퍼글릭 스페이스 (201. Public Space at Futako-tamagawa Station (201

image @ Nikken Sekkei

### 도시와 건축을 동시에 디자인하다 - 건물 저층부 설계

"대규모 도시 및 건축 개발은 도시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본 스튜디오는 서울 고밀도 상업지구 안의 오피스 건물의 저층부 디자인에 집중할 것이다. 하나의 오피스 건물이 아닌 블록 단위 안에 여러 오피스 건물의 저층부를 동시에 설계할 것이다. 건물의 저층부를 설계한다는 것은 결국 도시의 빈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동일한 질문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도시와 건축의 접점: 건물의 저층부는 도시와 건축이 만나는 접점이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만나는 지점이다.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자 통합되는 지점이다. 건축의 대지 안의 배치, 대지안 공지의 도시적 역할, 보행과 자동차의 이동, 외부 공간의 다양성, 효율성과 감성, 수평적 수직적 계획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점을 설계해나가고자한다.
- 오피스 건물 계획: 위의 도시적 관점과 함께 오피스의 조닝, 코어 계획, 입면 계획, 재료와 구조 등 오피스의 건축적 디자인도 함께 바라볼 것이다. 이것은 좋은 오피스 건물을 디자인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도시와 함께 건축이 작동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도시 **VOID** 리서치 & 세미나

본 설계 수업에는 국내외 도시와 건축에 대해 공부하는 세미나 수업과 리서치 수업이 포함된다. 학기 초와 중간에 관련책을 읽고 공부하고 지식과 시각을 확장하는 시간은 몇 회에 걸쳐 가질 것이다. 또한,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와생김새에 대해 공부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기록하는 리서치의 시간도 포함될 것이다. Unfolded Axonometric 기법을통해 도시 빈공간의 삼차원적인 공간감과 그 요소를 담는 시간 또한 학기초에 가질 예정이다.



